



교회소식 & 이웃소식

- 함께여는교회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1시 30분
- 함께 가는 공동체
뉴스앤조이, 교회개혁실천연대,
성서한국, 하나누리, 희년함께,
개혁자들, 촛불교회
- 교회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36가길 97(B1층)
- 교회 전화번호
02) 743-4113
- 교회 홈페이지
www.opentogether.org
- 교회 은행계좌
국민은행 089501-04-184175

섬기는 분들

교인총회의장	홍사성
운영위원장	표승범
예배팀장	김정민
사회선교팀장	노희창
교육팀장	유정욱
생활팀장	김현숙
가족팀장	안용희
재정팀장	방태흥
나눔미대표	박상현
청년회장	한의진
장로회	김대준
	김동훈
	송 건
	정모세
교육전도사	김 덕

1. 한반도의 평화, 경제정의,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함께여는교회입니다.
2. 예배는 방역 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주 일요일 11시 30분 방송으로 송출됩니다. 모두 감염병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노력해주시고, 함께여는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3. 주일 학교 예배는 일요일 오후 2시 ZOOM으로 모입니다 (김 덕, 유정욱)
4. 1월 17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표승범).
5. 1월 17일 장로회가 있습니다 (김대준).
6. 촛불기도회는 동계 휴지 기간입니다.
7. 함께여는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가족팀에게 말씀하시면 소정의 안내와 교육을 통해 함께여는교회 식구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안용희, 한성모)

함께여는교회

제13권 2호
2021년 1월 10일

방역수칙 무시하는 교회들의 이기심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공동대표 남오성·박종운·윤선주·최갑주)가 1월 7일,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 행태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최근 1000명 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와 이를 위시해 정부 방역 수칙에 반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전국기독교연합)의 몰상식한 행보를 지적했다. 개혁연대는 "국민 모두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 같은 사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개혁연대는 소상공인·학생·청년·부부·어린이·노인 할 것 없이 많은 이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일부 목회자가 "광기 어린 영웅 놀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목회자는 하나님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거짓된 정보를 맹신해 불합리한 신앙을 가진 성도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일을 침묵·방조로 묵인하는 교계 연합 기구와 교단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하다"며 책임을 물었다.

뉴스앤조이 기사에서 발췌

함께 여는 예배

오전 11시 30분

침묵의 기도	다	함	께
신앙고백	다	함	께
함께하는 기도	다	함	께
성경봉독	인	도	자
말씀나눔 성경의 교훈	김	대	준
환영/알리는 말씀	김	동	훈
송영과 축도	다	함	께

예배위원

	1월 10일	1월 17일	1월 24일	1월 31일
성경봉독	-	-	-	-
말씀나눔	김대준	김동훈	정모세	김정민
점심친교정리	-	-	-	-

함께여는교회 신앙고백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생명과 평화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여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임을 믿으며,
 이웃과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섬김과 사랑의 도를 배우고 실천케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적용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긴 계시임을 믿으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여는교회 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민6:24~26)